

Collision 운동선수에서의 견관절 전방 고정술 - 관절경적 술식과 관혈적 술식의 비교 -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부천 세종병원 정형외과*

이용걸 · 하정한*

서론

Collision 운동선수의 재발성 견관절 전방 탈구로 Bankart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는 재탈구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저자들은 collision 운동선수에서 견관절 전방 고정술의 결과를 분석하고 관절경적 술식과 관혈적 술식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재발성 견관절 전방 탈구로 견관절 전방 고정술을 시행한 46명 48예의 collision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20세(16~29세)이었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72개월(36~128개월)이었다. 16예에 대해서는 관절경적 술식을 시행하였고 32예에 대해서는 관혈적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최종 추시시 Visual Analogue Scale, Rowe 및 Constant 견관절 점수는 술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관절경적 및 관혈적 술식을 시행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결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군 모두 술전과 술후의 견관절 운동 범위의 차이는 없었다. 38명 (83%)에서 술전과 같은 수준의 운동력으로 복귀하였다. 술후 2예(4%)에서 아탈구를 경험하였으며 6예(12.5%)에서 재탈구가 발생하였다. 관절경적 술식을 시행한 군에서는 4례(25%)에서 아탈구 또는 재탈구가 발생하였으며, 관혈적 술식을 시행한 군에서는 4례 (12.5%)에서 아탈구 또는 재탈구가 발생하였다. 5례(10.4%)에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Collision 운동선수중 8례(16.5%)에서 아탈구 및 재탈구를 경험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높은 재탈구율을 나타냈다. 관절경적 술식을 시행한 경우 관혈적 술식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 재탈구율이 높았다. Collision 운동선수의 재발성 견관절 전방 탈구시에는 관혈적 술식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유용한 치료법으로 생각된다.